

청정 콩나물 재배기술

재배수의 온도도 콩나물의 부패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소홀히 하기 쉽다.

1. 원료콩의 선택

청정 콩나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원료콩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원료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발아되지 않은 콩이 부패병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아가 저조한 수입콩보다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콩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수분함량이 12% 이하

의 원료콩을 선택하여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된 것을 사용해야 발아율이 높고 콩나물의 부패 발생을 줄일 수 있다.

2. 재배온도

재배온도가 17°C 정도일 경우 콩나물의 부패는 발생하지 않으나, 재배온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콩나물의 생육이 늦어지므로 콩나물을 재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재배온도가 25°C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재배 6일부터 콩나물에 부폐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게 된다.

따라서 콩나물은 20°C가 유지되는 곳에서 재배를 하여야 부폐가 발생되지 않는다.

3. 재배수온

콩나물은 재배온도

〈표 1〉 재배온도에 따른 콩나물의 부폐발생 정도 (작시 : 1998)

재배온도 (°C)	재배일수(일)			비고
	5	6	7	
17	○	○	○	
20	○	○	○	
25	○	+	+	
30	+	++	++	○ : 발생하지 않음 +: 10% 이하 ++: 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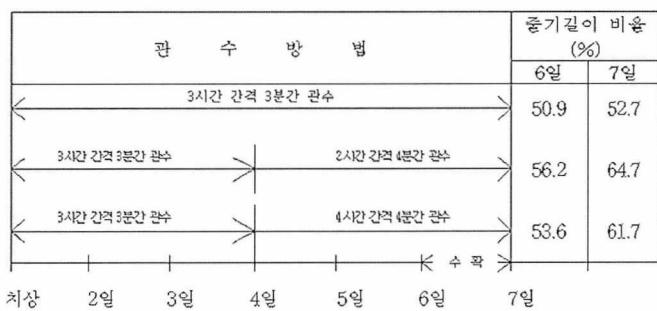
주) 재배수온 20°C로 고정

〈표 2〉 재배수온에 따른 콩나물의 부폐발생 정도 (작시 :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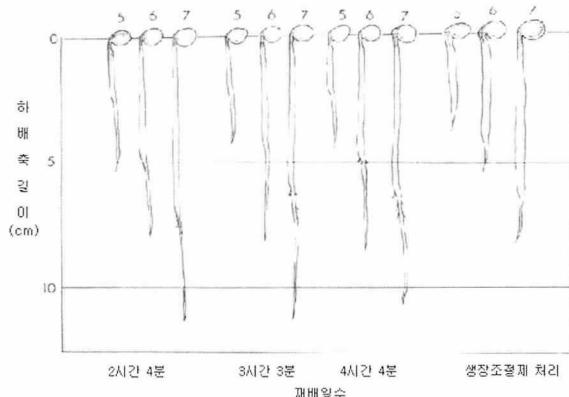
재배온도 (°C)	재배일수(일)			비고
	5	6	7	
14	○	○	○	
17	○	○	○	
20	○	○	○	
23	○	○	+	
25	○	○	+	○ : 발생하지 않음 +: 10% 이하

주) 재배온도 20°C로 고정

특집 ①



주 : 1) 공시품종 : 운하콩, 광안콩, 준저리, 수입콩의 평균치
2) 재배온도 20°C, 재배수온 20°C



[그림 1] 물주는 방법에 따른 하배축 길이

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재배온도가 20°C 안팎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배수의 온도도 콩나물의 부패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소홀히 하기 쉽다.

대개 콩나물의 재배에 사용되는 물은 17°C 안팎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온이 낮은 지하수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콩의 빌아를 나쁘게 하며 재배온도와 재배수온의 온도차이로 말미암아 콩나물의 생육이 저연된다.

그러나 재배수온이 23°C 이상이 될 경우 부패

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콩나물의 재배에는 재배온도 및 재배수온을 각각 20°C 안팎으로 균일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것이 부패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하겠다.

4. 물주는(관수) 방법의 개선

청정 콩나물의 재배에 있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이 잔뿌리의 발생과 줄기가 통통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콩나물에 물주는 간격과 시간을 조절하여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데 물주는 방법을 달리하였을 때 콩나물의 줄기 비율(줄기길이/전체길이)의 변화를 보면, '3시간 간격 3분간' 관수로 콩나물을 재배하다가 4일부터 '2시간 간격 4분간' 관수 및 '4시간 간격 4분간' 관수로 전환할 경우 콩나물의 줄기 비율이 54~65%까지 증가되어 콩나물의 상품성이 높아진다.

'2시간 간격 4분간' 관수로 재배된 콩나물은 무침용, '4시간 간격 4분간' 관수로 재배된 콩나물은 국거리용으로 적합하다. ④

참고문헌 : 김선림 외. 2000. 청정콩나물 재배기술 I. 재배온도 및 수온이 콩나물생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콩연구회지 17(1) : 69-75

김선림 외. 2000. 청정콩나물 재배기술 II. 관수간격 및 관수량이 콩나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콩연구회지 17 (1) : 76-83

성명 : 김선림

소속 :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전화 : 031-290-6886

E-mail : kimsi@rda.go.kr